

전국 최대 주산지 해남배추 본격 수확

재배면적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 폭염·폭우 등 악재 불구 생육 양호 김장철 배춧값 하향 안정세 전망

전국 최대 가을 배추 주산지 해남에 배추 수확이 본격화되고 있다. 올해 김장배추는 정식기 폭염으로 배추 육묘에 어려움을 겪으며 정식시기가 다소 늦어지고 가을철 폭우로 피해 우려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생육 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이어서 가격 안정세가 전망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발표한 '11월 농업관측정보 엽근채소'에 따르면 배추 도매가는

지난달 상순 10kg 기준 2만4900원에서 지속 하락해 하순에는 1만2040원으로 절반 수준까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해남 배추 재배면적은 가을배추 2259ha, 겨울배추 1998ha로 지난해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전국 배추 재배량의 25%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최대 주산지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해남 배추의 수확이 본격화되면서 배춧값은 차츰 안정세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장 시기를 일주일만 늦추기만 해도 평년 가격으로 김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일교차가 커지면서 배추 특유의 단맛이 강해지고, 속이 짙 차면서 단단해지는 만큼 일반 가정의

경우 11월 20일 이후 김장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해남배추는 중부지방의 재배기간이 짧은 배추에 비해 70~90일을 충분히 키워내면서 배춧속이 짙 차고, 황토 땅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 영양가가 풍부하다.

김치를 담그면 쉽게 물러지지 않고, 단맛이 나는 아삭한 식감으로 명품 배추로 불리고 있다.

해남군은 해남배추가 본격 출하되면서 김장 물가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11월 22일 김치의 날 즈음에 김장한다면 가격도 싸고, 품질도 가장 좋은 배추를 만날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지혜로운 선택을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옥당 사피엔스'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는 아이들.

영광군 인문학 체험 프로그램 '옥당 사피엔스' 큰 호응

이달말까지 230명 참여 5차례 진행

영광군 우리삶문화옥당박물관에서 펼쳐지는 '2024 길 위의 인문학 옥당 사피엔스'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고 있다.

영광군에 따르면 길 위의 인문학은 2023년부터 박물관·도서관·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다. 총 700개의 프로그램을 선정해 지역민들에게 제공하는 국내 대표 인문학 지원 사업이다.

이번 우리삶문화옥당박물관에 선정된 프로그램은 인문예 대한 관심 증진과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을 담아 강연과 체험, 지역 인문 자원 탐방 등을 결합한 프로그램이다. 11월 말까지 진행되는 옥당 사피엔스 프로그램은 2기수 5차시로 구성됐고, 선사시대 관련 주제로 구성됐다.

1차시 토기 발굴, 2차시 발굴 토기 복원, 3차시 아무르 비너스 만들기, 4차시 고창 고인돌 유적 답사, 5차시 암각화 그리기 및 느낌 나누기로 매 차시마다 23명, 총 23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2013년부터 꾸준히 길 위의 인문학 사업에 참여

한 우리삶문화옥당박물관은 약 1만2천여명을 대상으로 문화유산 발굴, 민화 그리기, 상감청자·인장·백제 향로 만들기 등 우리 역사의 시대별 대표 문화유산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민들에게 역사문화체험 향유 기회를 제공, 인문학적 소양 고취에 이바지하고 있다.

우리삶문화옥당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사업 수행을 바탕으로 2025년도에는 더욱 다양한 주제와 강,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역민들에게 인문학이 더 가까이 느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고품질 해남고구마 조직배양묘 분양 받으세요

호풍·진율미 등 국내품종 12만본 생산자·법인단체 29일까지 신청

해남군이 고품질 해남고구마 생산을 위한 조직배양묘 분양신청을 받고 있다.

분양 품종은 국내육성 품종으로 품질과 수량성이 검증된 호풍미와 소담미, 진율미 등으로 약 12만본을 추가 분양한다. 관내 고구마 생산자와 법인단체 소속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29일까지이다. 고구마 조직배양묘는 무바이러스 상태에서 육성된 묘순으로, 조직배양부위 차별화해 재배하는 고품질 해남고구마 생산의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일반묘에 비해 색, 모양이 우수하여 품질 좋은 고구마를 생산할 수 있고 생산량도 약 25% 증가시킬 수 있다. 하지만 계속 사용할 경우, 바이러스 감염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2~3년 주기로 갱신해야 지속적으로 고구마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고구마 조직배양묘 분양.

분양받은 생산자와 단체에서는 육묘하우스, 가온장치 등 적절한 육묘조건을 갖추어 정식 후 내년 봄 묘순을 정식하게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조직배양묘 분양을 통해 대

표 농산물인 해남고구마의 품질개선과 수량증대에 힘쓰고 국내육성 품종 보급을 통해 품질 경쟁력을 더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완도군, 한국수산벤처대학 신입생 50명 모집

다음달 19일까지...내년 10개월 교육

완도군은 미래 수산업을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오는 12월 19일까지 2025학년도 한국수산벤처대학 수산 벤처 과정 제1기 신입생 50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수산벤처대학은 2007년 완도군, 전남도, 조선대학교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내 최초 해양수산 분야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

고 있다. 지금까지 총 1390명이 수료했다.

수료생 중 해조류 추출물을 활용해 화장품을 개발한 이노플렉스 박수미 대표, 완도수산질병관리원 최윤재 원장 등이 활동하며 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교육은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조선대학교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완도군 신지면 명사십리)에서 10개월간이다.

수산 정책 관련 실무 이론, 해양수산 컨설팅(수

산 경영 및 마케팅, 창업, 시제품 제조), 국내·외 선진지 견학을 위한 현장 학습 등 벤처 인력 육성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수산 벤처 과정 수료 후 '최고 수산 경영자 과정'을 이수할 기회도 주어진다.

지원 자격은 거주지와 학력 제한이 없으며 만 65세 미만 수산업 종사자 및 예비 창업자로 수산 벤처에 관심이 있는 수산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입생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조선대학교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062-608-5922) 또는 완도군청 해양정책과(061-550-5101)로 문의하면 된다. /완도=정은모 기자 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mg@

기자 노트

세계를 매료시킨 신안군의 힘



이상선 서부 취재본부 부국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섬을 가진 신안군은 유인도 72곳에 3만 8000여 명의 주민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서남해 작은 자치단체다. 이런 탓에 주민은 낙후한 환경에서 온갖 고난과 시련을 겪으며 살아왔다. 하지만 민선 4기부터 현 박우량 군수가 신안군을 이끌어오면서 침체했던 신안을 획기적인 창의력과 추진력으로 신안을 초고속 성장시켜오고 있다.

박 군수는 기후온난화 등 지구가 급속도로 변화되어가는 것에 있어 주민들의 생활환경도 변해가야 한다는 것을 미리 계산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세계시장에 뛰어들어 넘쳐흐르는 에너지를 쏟고 있다.

이러한 그만의 에너지는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2024 리브컴 어워즈(LivCom Awards)'에서도 충분히 발휘했다. 리브컴 어워즈는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인한 세계적 권위의 국제대회로 '그린 오스카(Green Oscar)'라고 불리며, 전 세계 지방정부의 혁신과 우수 사례를 평가한다.

이번 리브컴 어워즈에는 전 세계 230개 도시가 참여했는데, 예선을 통과한 신안군도 30개국에 포함 결선을 치렀다.

박 군수는 결선에서 유창한 영어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신안'이라 주제로 발표하면서 심사위원들을 비롯해 참가자들을 매료시켰다.

신안군은 '살기 좋은 도시상' 부문에서 금상을 차지했고, 전 세계 국가들이 신안군 정책에 관심을 끌게 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신안군이라는 의미로 신안군을 세계에 알린 쾌거다.

박 군수는 지난해 6월 국제슬로시티연맹 총회에 초청되어 슬로시티 발전 논의도 함께 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UNWTO 해리 왕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장을 신안으로 초청해 군정

정책을 홍보하고, 신안세계미식관광포럼 유치와 국제미식도시 조성을 위한 방안도 모색하기도 했다. 이 같은 성과와 관련 주목해야 할 점은 유명인사가 된 박 군수의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신안 주민들의 삶에 안정을 주고 행복지수를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 각종 기구와 교류하면서 기후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이에 맞추어 신안농어업인들의 소득원도 전환해 소득 창출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군수의 이러한 에너지는 어디서 나올까. 박 군수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이들은 "박 군수는 언제 어디서 어떠한 환경과 사물을 보더라도 무심코 지나치는 경우가 없다"라고 입을 모은다. 힘의 원천은 같은 것을 보면서도 남보다 앞서가는 창의력을 발휘,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전하려는 자세와 솜구치는 에너지가 아닐까 싶다.

/sslee@kwangju.co.kr



영암군은 지난달 26일부터 11월 10일까지 월출산기전랜드 일대에서 개최한 '2024 월출산 국화축제'를 개최했다. 개회식 퍼포먼스 장면. (영암군 제공)

영암 월출산 국화축제 18만명 찾았다

31일까지 전시·야간조명 연장 운영

영암군은 지난달 26일부터 11월 10일까지 월출산기전랜드 일대에서 개최한 '2024 월출산 국화축제'에 관광객 18만 4000여명이 다녀갔다고 밝혔다.

'국화의 빛으로 가을을 밝혀라'를 주제로 열린 올해 축제에 국화 전시와 야경 조명, 음악 콘서트 등 다채롭고 풍성한 즐길거리를 관광객들을 맞았다.

특히 이번 월출산 국화축제는 온라인 포털 검색량을 합산해 순위를 매기는 '전국 축제 트렌드 지수' 10월 3위에 올라 남도 대표 가을 축제임을 증명했다.

올해 축제에는 레이저와 포그머신을 활용해 환상적인 북극의 밤하늘을 재현하는 '월출산 오로라(AURORA)'가 매일 열려 큰 인기와 찬사를 받았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목포시,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최우수업소 154개소 선정

목포시는 숙박업·세탁업·목욕장업 538개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해 최우수업소로 154개소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는 2년 주기로 업종을 달리해 매년 실시되며, 올해는 숙박업, 세탁업, 목욕장업 538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항목은 일반현황, 준수사항, 권장사항 3개 영역으로, ▲영업신고증 게시 현황 ▲소독 ▲환기 ▲청결상태 등 업종별로 30~44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또 월출산기전랜드 물놀이장에 설치된 폭포 일루미네이션 등 오색의 야간 조명이 더해지며 가을 밤을 낭만으로 물들였다.

영암군은 오는 31일까지 3주간 국화꽃 전시와 야간조명 운영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방문객들이 한창인 국화꽃과 향의 아름다운, 야간조명으로 축제기간 이후에 영암을 찾는 방문객들에게도 가을의 정취를 전하기 위해서다.

우승의 영암군은 "올 축제는 남도 대표 가을 축제의 위상을 굳건히 다지는 것은 물론 영암군의 생활인구를 늘려 교부세 확보 등 지방재정에도 기여한 축제였다"면서 "가을의 고즈넉한 여운을 느껴볼 수 있는 연장 전시에 많은 분들이 다녀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평가는 명예공중위생감사원이 업소를 방문해 평가조사표에 따라 평가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최우수업소(녹색등급) 154개소, 우수업소(황색등급) 167개소, 일반업소(백색등급) 125개소로 분류하고 등급별 업소 현황은 목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평가대상 업소의 10% 범위 내의 최우수업소는 인센티브로 우수업소 표지판과 종량제봉투가 제공된다.

/목포=박영길 기자 kyt@kwangju.co.kr

진도군 문화예술교육원, 출생아 수제 목도리 150개 기부

진도군 문화예술교육원은 교육원 수강생들이 출생아를 위한 목도리 120개를 직접 만들어 진도군보건소에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문화예술교육원에서 문화활동가 양성을 위해 운영하는 '기초초패션' 팀 수강생들은 진도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축하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뼘 한 뼘 정성을 들여 150개의 목도리를 제작, 전달했다.

진도군 문화예술교육원은 문화활동가를 양성하고 인구 유입과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에 담당하고 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